

민주 '제3지대 통합신당' 추진 배경

“與 全大 성공땐 신당 물거품”

장상 민주당 대표와 김효석 민주당 원내대표가 제3지대의 통합신당 창당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은 오는 14일 열린우리당 전당대회가 예정대로 치러진다면 소위 '범여권 통합'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절박감에서 비롯된 것으로 풀이된다. 민주당이 이미 당론으로 "열린우리당과의 통합은 없다"고 밝힌 상황에서 여당이 전당대회를 성공리에 마친다면 추후 정계개편 과정에서 여당은 질서있는 통합을 내세울 것이며 민주당 주도의 중도개혁세력 대통합은 사실상 어려워진다는 것이다.

與 신당과 명분취 탈당 유도

즉 민주당이 제3지대 통합신당 창당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야 열린우리당의 탈당 강경파들이 명분을 얻어 움직일 수 있으며 민주당도 추후 정계개편 과정에서 주도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계산이 깔려있는 것이다.

특히, 민주당 지도부는 적극적인 통합 움직임을 통해 열린우리당 의원들의 탈당을 유도하고 이 가운데서도 참여정부의 실정과 분당의 주역들을 통합신당 창당의 파트너에서 배제하면서 통합신당에 민주당의 정통성을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김효석 원내대표는 1일 기자와 만나 "현 정국 구도는 한나라당 독점 구도며 만약 이 상

태에서 정권을 넘겨준다면 한나라당의 보수화가 더욱 두터워지면서 대한민국은 또 한번 이념논쟁이 벌어질 것"이라며 "민주당은 중도개혁세력의 통합을 이뤄 통합신당을 창당하려는 시대의 요구에 부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만간 ‘창당’ 당내 논의 시작”

김 원내대표는 특히 "오는 14일 이후 열린우리당 전당대회가 성공리에 치러지면 여당은 질서있는 대통합을 요구할 것이며 이는 노무현 대통령이 기반할 수밖에 없게된다"며 "민주당이 적극적으로 나서 열린우리당내 중도개혁 세력이 탈당을 유도해 제3지대에 나설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부 언론에서 마치 민주당 의원들이 당장 탈당하겠다는 식으로 보도해 곤혹스럽다는 김 원내대표는 "신당 창당 준비위원회에 민주당 의원들이 당적을 버리고 참여하는 방안은 우선 당내 의결이 우선되어야 하는 것이며 하나의 시나리오에 불과하다"며 "그러나 열린우리당 많은 의원들은 민주당이 탈당과 통합신당 창당의 명분을 만들어주기를 바라고 있으므로 조만간 당내 통합 특위에서 통합신당 창당 문제를 집중 논의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 같은 민주당의 제3지대 통합 움직임은 일단 민주당 내부에서부터 상당한 저항에 직면할 전망이다.

당장 민주당 사수파에서는 제3지대 통합론을 역설하고 나선 장상 대표와 김효석 원내대표에 대해 '속도 위반'이라는 지적을 내놓고 있다.

열린우리당의 분당이 현실화될 이후에 통합신당 창당에 나서도 늦지 않으며 민주당이 먼저 백기를 드는 모습을 보일 필요는 없다는 것이다.

특히 일부 강경 사수파들은 민주당 간파로 차기 총선이 불안하다고 생각하는 일부 의원들이 통합신당이라는 안정적 자리에 연연하고 있지 않다는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

사수와 “與 분당후도 늦지 않아”

현재 민주당 지역구 의원 7명 가운데 동시탈당을 통한 제3지대 신당에 적극적인 의원은 김효석 이낙연 최인기 신중식 의원 등 4명이고 조순형 이상열 재일병 의원 등 3명은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점. 또 지역구 의원들의 탈당은 민주당의 존립기반을 근본적으로 흔들고 원외인사들의 거센 반발에 부딪힐 수밖에 없다는 것도 변수다.

민주당 고위 관계자는 "김효석 원내대표의 진의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지만 너무 빨리 치고 나가 는 것 같다"며 "일단 열린우리당의 분당이 이뤄진 이후 민주당이 내부 논의를 통해 통합신당 창당에 대한 전열을 갖추고 나서 진행해도 늦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대선주자 UCC 동영상

선관위 14건 삭제 요청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본격적인 대선 국면을 앞두고 대선주자 관련 UCC(사용자 제작 콘텐츠) 동영상 단속에 적극 나섰다.

선관위는 1일 인터넷 포털 사이트인 다음과 동영상 전문 사이트인 엠엔캐스트에 대선주자 관련 UCC(사용자 제작 콘텐츠) 동영상을 삭제토록 요청했다고 밝혔다. 선관위가 대선주자 UCC 동영상의 삭제를 요청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선관위가 삭제를 요청한 UCC 동영상은 박근혜 전 대표의 피아노 연주 모습을 담은 동영상과 '마백이' 개그를 패러디 한 이명박 전 서울시장의 '명백이', 손학규 전 경기지사의 '민심체조', '대선주자 꼭지점 댄스' 등 총 14건이다.

선관위 관계자는 "개인 블로그에 UCC 동영상을 올리는 것은 허용되지만 누구나 지속적으로 볼 수 있는 포털에 홍보 또는 비방용 UCC 동영상을 올리는 것은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한다"면서 "앞으로 UCC 동영상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중앙선거위가 1일 과천 선관위에서 개최한 '사이버관계자 업무협의회'에서 포털업체와 인터넷 언론사 관계자 등이 다가올 대선에 대비, UCC(사용자제작콘텐츠) 등과 관련된 선관위 관계자의 발언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



열린우리당 우상호 대변인과 선병렬 의원 등 전당대회를 통한 대통합신당에 서명한 의원들이 1일 영등포 당사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밝게 웃고 있다. 서명의원들은 초선 48명과 재선 8명 등 모두 56명이다. /연합뉴스

“탈당 대열 동참 않겠다”

우리당 의원 56명 서명... 全大 성공적 개최 등 3가지 원칙 제시

광주·전남 6명 참여

열린우리당 의원들의 집단 탈당이 초읽기에 들어간 가운데 1일 56명의 여당 의원들이 "전당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노력하자"며 탈당 대열에 동참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광주·전남지역 12명의 여당 의원 가운데서는 강기정(광주 북갑), 김동철(광주 광산), 지병문(광주 남), 이영호(강진·완도), 서갑원(순천), 김성곤(여수갑) 등 총 6명이 서명에 참여했다. 이들은 이날 오전 영등포 중앙당사

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우리는 비대위위 의결한 평화개혁세력의 대통합신당 추진이라는 의제에 적극 동의한다"며 "전당대회를 성공적으로 치러내기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또한, ▲2·14 전대의 성공적 개최 ▲새 지도부를 통한 지체 없는 대통합추진 ▲모든 기득권 포기과 함께 최단 시일 내 과제 완수 등 세 가지 원칙을 주장했다.

그러나 이날 서명에 열린우리당 1백34명 가운데 친노 중진과 당 사수파 등 20여명이 참여하지 않은 것을 고려하더라도, 산술적으로는 최소 60여명이 현재 전당대회 전 탈당이 가

능하다는 역산이 성립, 분당은 피할 수 없지 않으나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광주·전남지역 의원들 가운데서는 양형일(광주 동), 유선호(영암·장흥), 김태홍(광주 북을), 우윤근(광양·구례), 주승용 의원(여수 을) 등은 이날 서명에 참여하지 않아 조만간 탈당의 수순을 밟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여당의원이었던 염동연(광주 서갑) 의원은 이미 탈당한 상태다.

정동채 의원(광주 서을)은 문화관광부 장관 시절의 바다이야기 파문으로 당분간 정치적 입장을 밝히지 않을 전망이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탈당은 민주원칙 위배... 모든 기득권 포기”

우리당 김근태의장

열린우리당 김근태 의장은 1일 "2·14 전당대회를 원만히 치러 단순한 리모델링이 아니라 진짜 반성하고 거듭 태어나는 대통합신당을 추진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이날 오전 영등포당사에서 가진 기자회견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전대에서 대통합 신당을 책임있게 결의하도록 탈당과 의원들을 설득하는 등 적극적 역할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의장은 이어 최근의 집단탈당 움직임과 관련, "탈당을 고민하는 분

들의 마음을 이해하며 대통합신당으로 가는 책적질로 받아들인다"며 "그러나 전대 준비위원회와 중앙위의 결단을 웃음거리로 만드는 것은 민주주의의 대의와 원칙을 위배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손자병법에 나오는 '상옥추제(上屋抽梯)'라는 어구를 인용, "지붕에 올라가는 사다리를 걷어차는 건 일종의 배신행위이자 국민과 민주주의에 대한 배반행위"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신당추진 과정에서 대선주자들의 '2선후퇴'를 요구하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 "저를 포함해서 기득권이 있으면 모두 포기해야 한다"며



"그러나 책임성까지 포기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노무현 대통령의 탈당문제에 대해서는 "필요한 시점이 오면 대통령이 판단하고 결심할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당도 필요하다면 적절한 시점에서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당신의 빛이 될 단 하나의 명품이 옵니다

남다른 안목을 가진 분들의 특별한 사랑을 받아온 산심 이제 현대백화점 광주점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山心

山心 입점축하 이벤트

현대백화점 광주점

고오른가방 행사인비 유우 캔버린 피자, 아이스크림, 김용우의 캔버린로 광산을 드립니다. 일시: 2월 2일 오후 2시부터. 장소: 현대백화점 광주점 5층 관리. 광명문에서는 고객님께 스몰의 사은품을 드립니다. 행사인비 캠페인 고가에 판매

한국화장품(주) 빙문판매 대리점 경영자 및 주단학 뷰티매니저 모집 | 문의처: 광주 062)520-0330~2